

消 息

國 內 消 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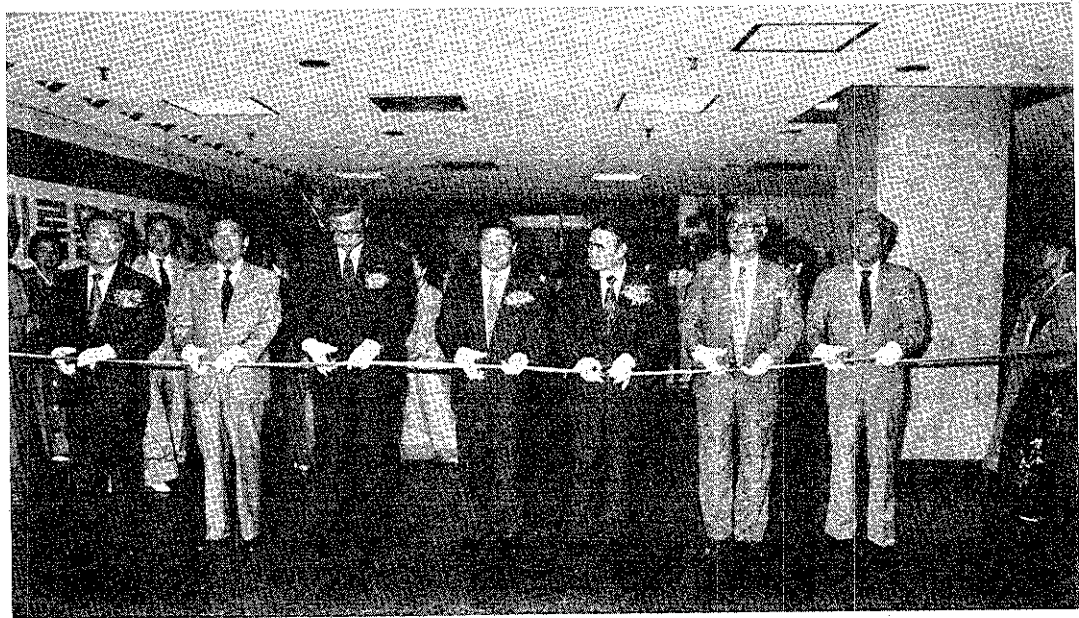
- 政府記錄保存所
- 國會圖書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國立中央圖書館
- 國立中央博物館

政府記錄保存所

政府記錄保存所는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는 국내 유일의 專門機關으로서 '91.5월말 현재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양은 문서 27 만 6천권, 도면 101 만매, 카드 142 만매, 시청각 자료 9 만 5천매, 마이크로 필름 14 만롤, 기타 특수기록물 8천·5백점 등이다.

'90년 한해는 매우 보람있고 바쁘게 보낸 한해로 光復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된 國家記錄物 展示會가 가장 큰 행사였다.

'90.8.13 ~ 18 까지 6일간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에서 개최된 이번 展示會는 전국 각지의 자료 소장자와 81개기관의 협찬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國務總理를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저명인사와 매일 약 2천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文化民族으로서의 自矜心과 記錄保存의 重要性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광복45주년 기념 국가기록물전시회 테이프커팅 장면

그리고 기록물보존관리를 효율화하고 민원인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화 5개년계획을 마련하여 소장기록물 전산화를 추진중이며 국제기록보존기구 주관으로 열리는 제 27차 기록보존원탁회의에 정부기록보존소장과 부산지소장이 참석하여 最新技術情報의 도입과 외국기록보존기관들과의 협력을 돈독히 하였다.

또한 당소에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들을 열람하기 위한 訪問客의 수가 작년에 비해 2배로 증가, 기록보존의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趨勢는 매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록물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학적보존관리기법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발전대책의 일환으로 기록보존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國 會 圖 書 館

國會圖書館에서는 1989년 10월 업무전산화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의 개발과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하여 主電算機(IBM 4381-P21)를 도입·설치하였다. 자체 주전산기 도입이전에는 산업연구원의 주전산기(IBM 4341)를 연결 사용하여 왔으나 입력 데이터의 양과 기개발된 시스템의 종류 등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도서관 自體業務用 主電算機 도입을 결정하고 국회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 및 국가전산망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스방식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1990년 5월에는 제 1회 亞細亞·太平洋議會圖書館會議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입법정보망구축(Building an Asia-Pacific Legislative Information Network)”이라는 의제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호주, 중화민국 등 19개국 및 아시아재단대표등 31명이 참가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으며, 아시아·태평양의회도서관협회(APLAP)의 규칙을 제정하고 初代議長(김주봉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장)과 副議長(Karl Min Ku : 중화민국 입법원 도서관장, John Brudenall : 호주 국회도서관부관장)을 선출하였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제 7대 원장 이현재 박사의 취임식이 1989년 5월 22일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당원의 전 원장, 서울대총장 등 내외 귀빈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현재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본원은 人文·社會科學 분야의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실에 관한 통합적 인식을 창출하는 中樞的 學術研究機關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199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韓國學의 世界化라는 대주제 아래 제 6회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하였다. 모두 7개 분과에 70여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진 이번 학술회의는 제 1회 국제 학술회의 이후 세계속의 한국문화를 종합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어온 과거의 국제 학술회의와는 달리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지향하는데 그 특징이 있었다. 共産圈과 東歐圈을 포함한 국내외의 한국학 연구자 300여명이 참가, 철학·종교·역사·예술·사회·민속·정치·경제·교육·윤리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연구성과 발표 및 학술정보가 교환되었으며 해외한국학 연구의 활성화와 영역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아울러 1990년 6월 30일로 당원은 개원 12주년을 맞아 조출한 기념식을 가졌다.

國立中央圖書館

각종 자료의 확충·보존 및 서지발간등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최신정보 및 자료의 신속한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內的으로는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193개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시범도서관 지정, 운영 및 자료보급을 지도·지원하고 있으며, 國外的으로는 각국 도서관과의 도서관 자료의 국제 교류를 추진하여 77개국 297개처와 자료를 교환할 예정이며 일부는 추진 완

료되었다.

또한 1982년 당관이 컴퓨터를 도입, 업무를 전산화 하기 시작한 이래, 납본업무를 포함한 수서업무의 대부분과 정리업무, 자료관리 및 서지발간업무(문헌정보,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 등)가 이미 전산화 되었으며, 정보검색업무도 개발이 완료되었다.

또한 당관에서는 國家情報能力의 획기적인 신장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며, 國家文獻情報 流通體制 구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국내 120개 주요도서관 및 해외의 문헌정보유통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圖書館情報電算網」(KOLIS-NET) 형성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다.

國立中央博物館

國立中央博物館은 民族文化 暢達을 통한 민족문화의 증흥과 대내외적인 文化韓國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1926년 총독부 건물로 지어진 구 중앙청건물을 360억 원의 예산투입과 3년간의 개축공사를 거쳐 1986.8.21 이전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면적 부지 30,435평, 건축면적 2,834평으로 본관, 사회교육관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관 전시실은 24개 전시실로서 약 6천여점의 유물을 時代別, 類形別로 상설·전시하고 있다.

이전 개관후 '90.6 말까지 방문한 내국인 관람자의 수는 600만명으로 연간 150만 명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고있다.

그의 博物館 施設 및 展示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경주, 광주, 공주, 부여박물관 외에 전주와 대구박물관 건립과 부여박물관, 민속박물관 이전 개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우리문화 遺物 特別展을 개최하여 한국문화를 국내·외에 선양하고 각계 각층에 대한 박물관 교실을 개설하여 社會教育活動을 강화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조사, 신규보급을 통한 문화사적 체계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90년 문화부 발족과 더불어 “文化福祉國家建設”이라는 기치 아래 적극적인 문화유산의 보급·선양의 일환으로 도서, 벽지, 공단, 교도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전시하는 “움직이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91년부터는 全國의 國立博物館이 다같이 참여할 계획이다.